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하겠다”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 교육 혁신 구상 발표... 장세환 위원장 지지 표명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공공형 대안학교인 '전북 리더스 국제학교(가칭)'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북 교육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과 교육 다양성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며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장세환 전 국회의원은 황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장 위원장은 "황 후보는 수십 년간 교육 행정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전북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고 판단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 예비후보는 제안한 '전북 리더스 국제학교'는 초·중·고 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공공형 또는 공립 대안학교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액의 학비가 필요한 기존 국제학교와 달리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교육과정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과 OECD 연계 글로벌 인턴십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황 예비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에 영어 공용어 사용과 다중언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실생활 중심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학습 진단과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결합한 교육 방식을 통해 기술과 인간 중심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선발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을 5대 50 비율로 선발하는 쿼터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전북 지역 학생에게도 일정 비율을 배정해 지역 인재 육성과 외부 인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학교 설립은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초·중·고 통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 예비후보는 "사교육이나 해외 유학 없이도 지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북을 교육 중심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형 국제학교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기존 공교육에도 확산 가능한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북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영유아부터 교육 격차 차단”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형 생애 출발 책임교육 구상 제시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전북형 생애 출발 책임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 혁신 구상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출발선에서의 교육 격차가 초·중등 학습 격차와 지역 인재 유출로 이어진다"며 "영유아 단계부터 공공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격차 제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다. 현재 무상에 가까운 영유아 교육비에서 체험활동비와 교재비 등 남아 있는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기관 유형에 따른 비용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학급당 아동 수를 단



계적으로 축소해 교사 1인당 돌봄 밀도를 낮추고 개별 발달 중심의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초등 이후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국공립 수준의 교육 환경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 품질을 보장하는 '공공

책임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포함됐다. 도심 지역에는 특성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에는 거점형 영유아 교육 기관과 권역별 돌봄망을 구축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처우 개선과 행정업무 경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사가 교육과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예비후보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전북 교육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돌봄·정부가 결합된 체계를 통해 전북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아침 10분 독서' 자료 보급 전북교육청, 독서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아침 10분 독서' 활용지도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초·중·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독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보다 체계적인 독서·토론 교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짧은 시간 동안 꾸준히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독서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용 자료 '아침 10분 독서, 생각이 자라는 시간'은 추천도서 100선 가운데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학교용 '아침 10분 독서 레시피'는 독서 전 활동과 슬로우 리딩, 디지털 통제력 점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학생들의 사고 확장과 자기 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교용 '리드 온(READ ON) 플러스'는 독서를 토론과 대화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활용 연수를 진행해 현장 적용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확대

전북교육청, 점검단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단 운영을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원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급식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학교급식 점검단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점검단은 학부모와 식품위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급식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급식 위생과 안전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위생·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점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학교급식 관련 법규와 점검 기준을 비롯해 식중독 예방, 식재료 검수 및 보관 관리 기준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적 취급 방법 등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교육청은 점검단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회가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해 새달라며 대학발전기금 8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평생 강단에 바친 스승들,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밥 선물

전북대 명예교수회, 후학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발전기금 기부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한 끼를 먹고 싶었다. 평생 강단에 바친 스승들의 그 한 가지 마음이 후학들을 위한 따뜻한 아침밥이 되어 모교로 돌아왔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회(회장 최대규)가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해 새달라며 발전기금 800만원을 기부했다. 교육과 연구에 평생을 헌신해 온 원로 교수들이 퇴임 후에도 제자들의 아침 밥상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증식은 지난 18일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열렸다. 양오봉 총장과 명예교수회 최대규 회장, 유진식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취업진로처장과 총학생회장도 자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부금은 전액 '천원의 아침밥' 운영을 위한 지정 기금으로 활용된다. 올해 3만 2500명에게 지원되는 천원의 아침밥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대 명예교수회는 최근 전

북대학교 명예교수회지 창간호를 발간하며 정년 후에도 학문적 지혜를 나누는 소풍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 과학기술인 사회적활동'을 창립함으로써 명예교수들이 정부 및 지자체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물론, 산업체 기술지도와 자문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또한 대학의 주요 현안인 글로벌 캠퍼스 30 사업 성공을 위해 원팀(One-Team)으로서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에듀페이 24일부터 신청접수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신청... 학생 1인당 최대 2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인 '전북에듀페이' 신청을 시작한다.

전북교육청은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초·중·고 학생 1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에듀페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항목별로 일정이 나뉜다. 입학 지원금은 24일부터 27일까지,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로 구성된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 학생 20만원, 중·고 학생 15만원이 지급되며, 초·중·고 1학년 및 특수학교 신입생이 대상이다. 교육청 누리집 내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2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비(초등 10만원, 중·고 15만원)와 진로지원비(초등 10만원, 중·고 20만원)는 전용 앱이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에

듀페이카드(바우처 카드)로 지급된다. 전북에듀페이카드는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전용 카드로, 온라인과 전북에 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 동안에는 토·일요일에도 콜센터 이용이 가능하며, 전북은행 전용 콜센터 운영과 일부 영업점 운영시간 연장(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영업(점오~오후 4시), 장수·임실 지역 임시영업소 운영 등 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를 통해 배부된 안내문과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총 288억 원 규모로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6만3,000여 명에게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물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026 신규 IB 관심학교 10곳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신규 IB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10개교를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0개교를 IB 관심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IB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선정된 학교는 남원월라초, 당북초, 운봉초, 장수초 등 초등학교 4곳과 영선중, 왕산여중, 전주근영중 등 중학교 3곳, 성원고, 유일여고, 호남고 등 고등학교 3곳이다.

이들 학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년간 관심학교로 운영되며, IB 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의 수업·평가 연구, IB 월드스쿨 참관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관심학교는 운영 기간 종료 후 IB 후보학교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후보학교 선정은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관심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행 과제와 프로그램 이해, 추진 일정,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안내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오늘 학부모 대상 자기주도학습 코칭 교육

전주교육지원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 교육을 마련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 청사 시청각실에서 '학부모 자기주도학습 학습코칭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주 지역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가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고 계획과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코칭형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청초내래 시청각실에서 '제4기 전북학생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학생 참여 학교문화 본격... 전북학생의회 출범

의장에 전라고 이강준 학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4기 전북학생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청초내래 시청각실에서 제4기 전북학생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의원 50명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학생의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는 전라고 이강준 학생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리여고 문해빈 학생

과 고창고 황성원 학생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이강준 의장은 "전북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교육공동체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원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학생의장 개원사 축사, 당선증 및 배지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의원 전원이 참여한 핸드페인팅 퍼포먼스를 통해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문화 조성 의지를 다졌다.

/오상근 기자